

# 司 牧

146

1991년 3월

권두언 · 지역 감정의 극복/백남익 2

특집 · 성숙의 한 문제 : 지역 갈등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성격과 전망/김문초 4

지역 감정의 원인과 해소 방안/문석남 20

한국 사회의 발전과 지역 갈등의 극복/김진혁 · 유석춘 41

지역 갈등과 지역 교회론/이순성 50

사목대담 · 지역 감정 문제와 대책/최용록 · 김형문 · 김익기 68

신앙과사회 · 사회의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이루어진다/전달수 92

나의고백 · 김광혁 100

우리의만남 · 지역 갈등, 화해를 위한 제언/  
홍길성 · 장인순 · 권선숙 107

사회주의와 가톨릭 교회(2)/김춘호 114

사목자료

주일의 말씀/김몽은 124

교회법 해설 제2권 제2편(18)/정진석 135

□특집 · 성숙의 한 문제 : 지역 갈등

## 한국 사회의 발전과 지역 갈등의 극복

김진혁(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유석춘(연세대학교 교수 · 사회학)

### I. 서론

해방 후 한국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다. 그중 일부는 해결되거나 소멸되어 버리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 구성원들과 사회 전체에 고통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갈등 중에서 1980년대를 통해 가장 커다랗게 부각되었고 90년대에 또 여전히 한국 사회의 핵심적 갈등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노사 갈등과 지역 갈등이다. 그런데 노사 갈등이 산업화 과정의 심화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갈등 현상이라면, 지역 갈등은 한국 사회 내부에 독특한 역사와 형성 원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역 갈등의 문제는 1987, 88년의 양대 선거에서 극심한 지역성이 나타난 것을 계기로 크게 부각되었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지역 갈등의 원인과 양상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한국사회학회, 1990; 한국심리학회, 1989).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도 지역 갈등의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의 기미를 보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은 '지역'이라고 누구나 말할 만큼 뿌리 깊은 '한국 병'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90년대에 대내적으로는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성취하여야 하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역 갈등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구체적인 갈등의 양상과 함께 그 원인과 영향을 파악한 후 극복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II. 지역 갈등의 양상과 원인

지역 갈등은 영호남간의 대립과 반목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지역 갈등이 영호남 간의 반목뿐만 아니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포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김진국, 1989).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지역 갈등을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반감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반감으로 구분하여 그 양상 및 원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

호남인은 왜 영남인을 싫어하는가? 호남인들은 공통적으로 차별과 피해를 받았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 가해자가 영남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남인의 피해 의식은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 전개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비롯되고 있다. 그중 첫째로 꼽히는 것은 호남 지역이 1960년 이래 추진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5·16 이후 권력과 돈을 차지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 재계의 엘리트의 대부분이 영남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피해 의식 혹은 적대감의 근거로 설정되는 위의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더 따져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번째 문제인 개발 과정에서의 소외의 문제는 충청이나 강원 지역도 해당되는데 왜 유독 호남인들만이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인 지배 엘리트의 층원 문제 또한 영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진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유독 호남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 갈등 문제의 핵심은 왜 ‘영남에 대한 특권’이 발생하였는가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호남에 대한 차별’을 부각시키는 논리의 비약 아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영남에 대한 특권’이 발생하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예를 들면 산업 입지 조건) 여기에서의 논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측면은 한국 전쟁이 남한 사회의 구조화에 미친 영향이다. 최근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전쟁 당시 남쪽의 편에서 참전한 비율은 지역적으로 영남이 가장 높고 호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석춘·이우영·장택진, 1990).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구축된 남한의 사회 구조는 전쟁에 참여한 집단을 선택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참전 세력이 중심이 된 지배 구조가 전쟁 이후 40여 년 간 지속되면서 영남의 특권적 위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전쟁 후에 구축된 남한 사회의 정치적 권력 구조, 사회적 계층 구조, 경제적 분배 구조는 모두 ‘영남의 특권’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영남의 특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호남인의 경우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나아가서 적대감으로까지 전환되고 있는가? 이 문제의 설명에 빠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김진국, 1989). 광주 사건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운동 과정은 기존의 지배 질서 즉 영남 중심의 참전 세력에 의한 사회의 구조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60, 70년대를 통해 꾸준히 전개된 밑으로부터의 도전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게 일정한 위협을 느끼도록 한 나머지 중국에는 광주 사태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물론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호남인이었고, 그 사회적 결과는 ‘영남의 특권’을 보장하는 지배 질서의 정당성에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흠집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호남인들은 그들의 상대적 소외 의식을 곧바로 영남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광주 사태와 같은 특수한 경험을 겪지 않은 충청이나 강원 지역 출신은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이 호남인만큼 강하지 않은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광주 사건이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의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은 1980년 이전에 지역 감정을 연구한 문헌들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97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호남인들은 자기 자신들 이외에 제일 좋아하는 지역민으로 영남인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김진국, 1977: 29). 그러므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은 사회 구조적으로 ‘영남인의 특권적 위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 특히 광주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호남인이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2.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에 비해 전국인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은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심리적으로 보여진다. 먼저 전국 사람들이 호남인에 대해 느끼는 구체적인 거부감의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남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불신’의 감정이 가장 두드러진다(김진국, 1989: 48). 이를 더 세분화하면 ‘간사하다’ ‘타산적이다’ ‘이기적이다’ 등의 형



용사로도 표현된다(안신호, 1988; 이진환, 1988). 그렇다면 왜 호남인들은 이러한 내용의 편견을 받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흔히 지적되듯이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 혹은 삼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민현구, 1990), 그 시대에 위정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현재처럼 확산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료는 없다(송복, 1990; 정경희, 1990).

오히려 호남인에 대한 편견은 제3공화국 이래의 정치 과정, 특히 선거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성 및 확산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이상우, 1985). 1963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지역 출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성이라는 원초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박정희와 김대중이 경쟁한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점차 상대방 후보의 출신 지역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심화되면서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 출신 후보를 스스로와 동일시 하면서 상징적 대표성을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1987년과 1988년의 양대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적인 선거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표출되게 되었다(유석춘·서원석, 1989; 차종천, 1988). 그런데 이러한 선거에서의 승자는 늘 영남이었고 그 상대자는 호남이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써 선거 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포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편견이 발생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입장도 있다. 이 견해는 인구 이동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중시한다. 즉 근대화에 따른 농민층 분해 과정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농민임을 주목하는 것이다. 호남 지역은 조선조에 조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됨과 동시에 대규모 지주제가 강력히 형성되어 농민층에 대한 고도의 착취가 자행되었고, 지역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이 편리하여 중앙(서울)으로의 보다 많은 인구 이동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호남으로부터 대규모로 유입하여 온 가난한 농민들은 서울에 사는 기존 사람들에 대해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사회적 거부감을 야기시키게 되었다는 설명이다(송복, 1990:254-266). 이러한 논리는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 수반한 도시화의 과정에도 똑같이 수용될 수 있다. 즉 영남 지역은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거점 도시가 존재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농촌 탈출 및 서울 진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 데 반하여, 호남은 거점 도시의 상대적 부재로 인하여 아무런 준비 과정이 없이 농촌으로부터 서울로 직행하게 됨으로써 서울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게 되어 호남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생성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김만홍, 1987). 이러한 주장은 서울 시민의 계층적 지위를 출신 지역에 따라 분류할 때 호남 출신이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김진혁, 1990).

호남인에 대한 편견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에 비해 현실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적은 심리적인 속성의 편견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인을 단정적으로 해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던간에 중요한 사실은 편견은 일단 형성되면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한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심리적 범주가 완고하게 되면 그 범주의 속성들은 불변이며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거부된다”고 말한다(Allport, 1980: 172). 그러므로 2차적인 인간 관계가 지배적인 현대의 도시 생활에서 ‘불신’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호남인에 대한 편견(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건간에 이미 존재한다면)의 내용이 ‘불신’이라면 똑같은 불신을 경험하더라도 호남인으로부터의 그것은 한층 더 강렬하게 수용되어 호남인의 당연한 속성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증폭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신’이라는 부정적 느낌을 실제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인으로부터의 불신을 경험한 경우 호남인은 “믿을 수 없다”는 편견과 합치되어 이 편견이 유지 및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편견은 편견을 가지게 된 사람 스스로 직접 그것을 경험하였다는 ‘경험적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편견은 결코 영남인의 인성을 문제삼지 않고 구체적 가해자로서 영남인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나,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편견은 호남인의 인성을 문제삼는 심리학적인 것이며 상대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 Ⅲ. 지역 갈등의 영향

여러 사람들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지역 갈등의 부정적 결과(또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바 그것은 분열주의를 조장하며 선거와 같은 합리적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불합리한 연고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염려는 한마디로 지역 갈등은 “국민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고흥화, 1989:7).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갈등의 문제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호남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반응 양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반응 양식이 한국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는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지역 감정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역간 거부감의 중심은 물론 호남 지역이다. 호남은 전국적으로 편견을 받고 있고 또한 영남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호남의 위치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고립적이다. 이러한 호남의 고립을 보여 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호남인을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데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35%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타 지역이 2%에서 5%의 거부율을 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무척 높은 수치이다(김진혁, 1989:49). 또한 각 지역민간의 결혼 유형을 실제로 살펴보면 호남 출신이 서울 거주민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타지역과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도 드러난다(김용학·김진혁, 1990).

이와 같은 전국적인 차별 혹은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호남인의 반응은 무엇인가? 호남인에게는 대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첫째로, 호남인들은 '탈출' 성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호남 출신 중 본적을 서울 혹은 타지역으로 옮기는 사람의 비율은 영남 출신의 그것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김혜숙, 1988). 본적을 아예 타지역으로 옮김으로써 '호남인'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둘째로, 자기 집단에 대한 '충성'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선거에서 자기 집단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호남 출신 후보의 당선이 호남인이 받는 차별과 소외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반응 양식은 호남인들에게 불만 해결의 궁극적인 방안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1, 1987, 1988년의 선거 결과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가올 지방 자치 체도에 의한 각급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호남인들이 편파적 충성에 대응하여 다른 지역(경상, 충청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충성'이라는 반응 양식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셋째로, 호남인들의 '저항'이 나타난다. 차별감과 불만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추구에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배 질서에 의한 사회 구조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호남인의 저항은 당연한 결과이다. 호남인의 이러한 경향은 타지역민에 비해 진보적 사회 변

혁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한 예로서 학생 운동 관련 구속자의 수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호남 소재 대학생의 구속자 인 수가 영남의 그것보다 절대 수치에서 25% 가량 많으며, 전체 학생의 인구비로 따져 보면 5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김진혁, 1989:70). 이런 추세가 학생 운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운동에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진보적인 변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출신지별로 분석해 볼 때 호남 출신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짐작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 변혁 운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불만의 원인을 분석한 한 논문은 지역 차별 의식이 계급 의식에 못지않게 높은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유석춘·심재병, 1989).

이상과 같은 호남인의 세 가지 선택을 전체 한국 사회라는 틀에서 보면 우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지역성에 의해 판가름나는 역설을 가져다 주고 있고, 다른 한편 진보적 사회 변혁이라는 커다란 흐름의 사회 운동이 얼핏 보기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지역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내 주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갈등의 문제, 그중에서도 호남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 시한 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진 인화 물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IV. 지역 갈등의 극복 문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남인의 특권적 위치와 광주 사태로 대표되는 호남인의 구체적인 피해가 결합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영남인의 기득권이 양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열려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제안은 물론 우격다짐으로 영남인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기회의 평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서만 특정 지역 출신의 사회 지배층 독점 현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호남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광주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경제적 보상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광주 문제의 중요한 배경

이 되는 호남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행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 탈냉전의 구도 아래 북방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므로 중국 대륙과의 연계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서해안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지금까지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호남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호남 출신 정치 지도자의 정권 수용이라는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호남인에게는 당연한 열망인지도 모르지만 타지역인들에게는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호남인의 피해 의식은 해소되더라도 타지역인의 호남에 대한 감정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인의 피해 의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나, 이는 항상 다른 지역과의 관련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역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적대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적대감이란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심리적인 뿌리를 가진 편견이라는 이유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편견의 해소를 위해서는 아예 편견이 나타나는 범주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투리 사용을 금하고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전라·경상 등의 구분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써 편견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해소책일 것이다. 다만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통 수단 및 통신 시설을 확충하여 빈번한 접촉을 유도함과 동시에 가정을 포함한 사회와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편견이 정말 편견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학문적, 사회적 활동과 언론 매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해소책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참된 민주화를 통해 억압이 드러나고 책임과 양심이 회복되고 정의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동화 같은 결론일지도 모르지만 세세한 해결책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같은 참된 민주화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 [참고문헌]

\*고흥화, 1989,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 \*김만홍, 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연구—영호남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 \*김용학·김진혁, 1990, “결혼의 관계적 분석”, 「한국사회학」 24집 여름호 게재 예정.
- \*김진국, 1977, “한국대학생의 지역적 편견연구”, 「전국대학생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사회과학분야」.
- \*김진혁, 1989,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혁, 1990, “지역과 계층구조”, 「연세 사회학」 10, 11 합본호.
- \*김혜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민현구, 1990, “지역갈등의 역사적 설명에 대한 논평”,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 \*송 북, 1990,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제9장(지역갈등), 현대문학.
- \*안신호, 1988, “집단 고정관념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지성의 효과”,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이상우, 1985, “비극의 유산: 불신과 지역감정” 「신동아」 10월호.
- \*이진환, 1988,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태도”,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유석춘·심재범,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두 가지 기반: 계급 의식과 지역차별의식”,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 \*유석춘·서원석, 1989, “유동표에 대한 판별분석”, 「한국사회학」 23집 여름호.
- \*유석춘·이우영·장덕진, 1990, “한국전쟁과 남한 사회의 구조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6권 2호.
- \*한국사회학회, 1990,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 \*한국심리학회, 1989,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차종천, 1988, “지역주의적 선거와 유권자: 13대 대통령선거 후보지지에 대한 로짓분석”, 「한국사회학」 22집 겨울호.
- \*Allport, G.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